

전기요금 개편...자영업자들 “어름 앞두고 막막”

내달부터 일반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저녁시간대 요금 인상...헬스장 등 야간 업종 타격

다음달부터 일반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요금이 오르는 방향인데, 퇴근 이후 손님이 집중되는 헬스장과 PC방 등 야간 운영 업종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편은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라 낮 시간대 남은 전력을 사용을 늘리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 사용은 줄이

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시간대별 요금 구조 변화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최고요금 구간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해당 시간대가 중간요금으로 조정됐다.

반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중간요금 구간에서 최고요금 구간으로 상향됐다. 사실상 '낮에는 저렴하게, 저녁에는 비싸게' 전기요금 체계가 바뀐 셈이다.

이번 개편안 시행에 대해 정부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 소비를 유도하고 전력 수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일반용과 교육용 전기요금까지 개편안 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PC방과 헬스장 등 저녁 시간대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영업장의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을 2주가량 앞두고 벌써부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현장의 영업 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저녁 이후 손님이 몰리는 업종들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서구에서 24시간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수형씨(39)는 최근 냉방기 가동 시간을

줄이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러닝머신과 사이클 등 운동기구는 물론 냉난방기, 샤워실 온수기, 환기시설까지 하루 종일 전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직장인 회원들이 몰리는 오후 7시 이후가 가장 바쁜 시간인데 그 시간대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진다고 하니 부담이 크다”며 “회원 수는 예전 같지 않은데 전기료 부담까지 늘어나면 운영이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기구 전원을 끌 수도 없고 냉방을 줄이면 회원들 불만이 바로 나온다”며 “결국 다른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PC방 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북구에서 120석 규모 PC방을 운영하는 박성민씨(44)는 최근 매장 내 조명을 LED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사양 PC수십 대를 장시간 가동해야 하는 데다 여름철에는 냉방까지 동시에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PC방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손님이 가장 많다”며 “손님 없는 시간에는 일부 좌석 전원을 끄더라도 피크 시간대에는 모든 PC를 켜야 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료가 계속 오르면 음식 가격이나 이용요금 인상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장사 안 되는 것도 힘든데 고정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부담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특히 여름철 냉방이 시작되는 6월부터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부담은 더 커질 것

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요금 인하 효과를 보는 곳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낮 시간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나 전력 사용을 분산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태양광 발전 확대 등 변화한 전력 수급 환경에 맞춰 전기 사용 패턴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별로 체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원자재 급등...한전, 전선업계 140억 계약금 조정

납기 연장·재고 확대 등 지원

“전력망 공급망 위기 최소화”

한국전력공사가 중동 사태 여파로 급등한 전선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에 나섰다.

특히 원유·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전선 제조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자 계약 금액을 즉시 조정하고 납기 연장, 재고 확대 등 전방위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국가 전력망 공급 안정화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선·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 기자재 수급 안정 및 원자재 공급 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실제 전선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와 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선 원자재 가격



한국전력은 최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선·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 기자재 수급 안정 및 원자재 공급 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 평시 대비 30~4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업계가 요청한 물가 변동분 반영 건 가운데 26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총 140억원 규모의 계약 금액 조정을 시행했다. 향후 추가 인상분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계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또 공급 차질 우려가 큰 전선 품

목에 대해 납기를 일괄적으로 30일 연장해 제조사의 생산 부담을 낮췄다. 배전용 고압전선 재고도 집중 관리해 공급 가능 일수를 기존 대비 1.6배 수준까지 확보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장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력 기자재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진흥원, 게임 산업 육성...인디게임 지원

창업·제작 분야 4개사 선정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기반 게임 산업 육성과 독창적인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6년 인디 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

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지역 게임 생태계의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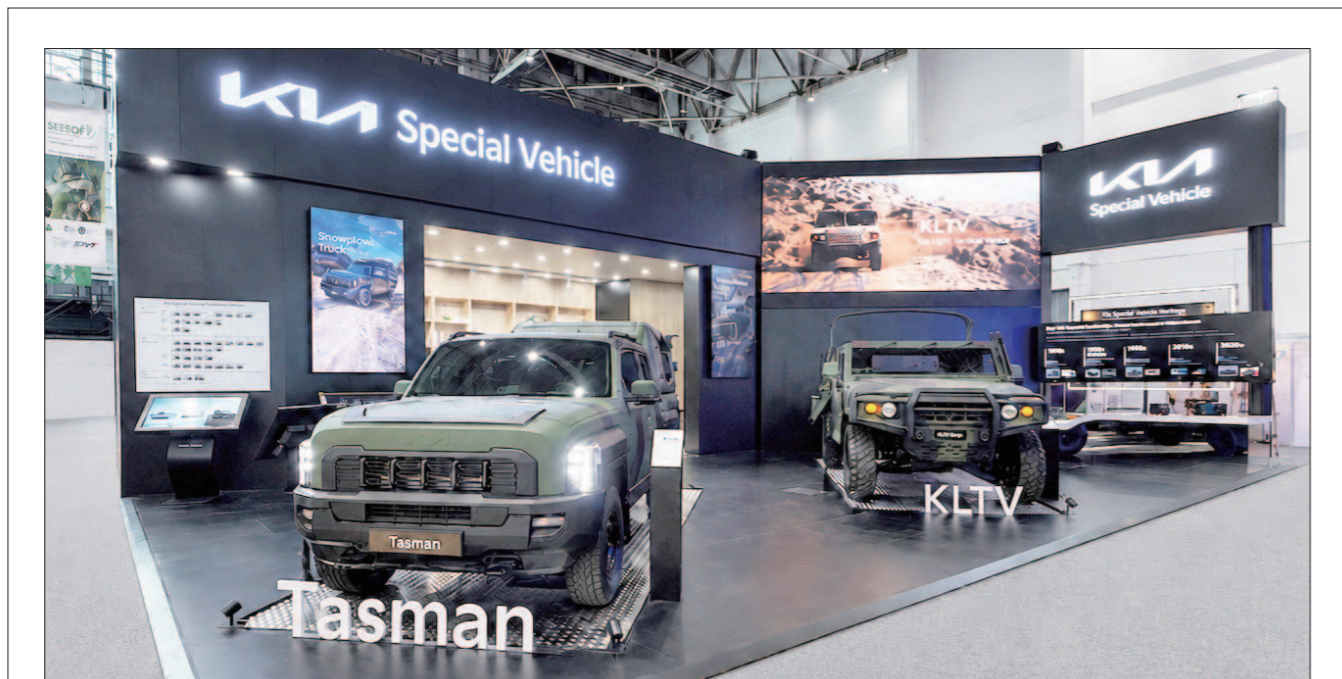
개발 역량을 갖춘 지역 게임 기업은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게임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1억원으로, 지원

대상의 특성에 따라 두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인디 게임 제작지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2개사를 선정해 과제당 3000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인디 게임 창업 제작지원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개사를 선정해 과제당 2000만원 내외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개인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기아가 13일부터 15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되는 방위산업 전시회 'BSDA 2026'에 처음 참가해 다양한 군용 차량을 선보인다. 사진은 루마니아 'BSDA 2026' 기아 전시관 전경.

기아, 루마니아 'BSDA 2026' 방산전시회 첫 참가

정통 픽업 타스만 기반으로 군용 지휘차 유럽 최초 공개

기아가 동유럽 및 흑해 지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전시회인 'BSDA (Black Sea Defense, Aerospace & Security) 2026'에 처음 참가해 다양한 군용 차량을 선보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BSDA 2026'은 오는 15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36개국 650개 업체가 참가해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관련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기아는 타스만 군용

지휘차를 유럽 최초로 공개한다.

타스만 군용 지휘차는 정통 픽업 특유의 오프로드 성능과 안전·편의 사양을 기반으로 무전기 및 등화관제(대적 노출 방지를 위한 조명 통제) 등 특수사양을 장착해 작전 운용 능력을 강화한 차량이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국군의 표준 지휘차로 실전 투입됐으며, 첨단 기술과 내구성, 운전 편의성까지 갖춘 미래형 군용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기아는 소형전술차(KLTV) 2인승 카고 차량도 함께 전시한다.

소형전술차는 수심 760mm 하천 및 60% 종경사·40% 횡경사 주행, 총탄·폭발물 보호, 영하 32도까지 시동 가능, 전자차 차단 등 강력한 현지 주행 능력을 갖춘 극한 환경에서도 군 병력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특히 2인승 카고는 공기 흡입구를 높여 침수를 방지하는 스노클(Snorkel)과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을 장착해 사막·열대우림·산악 지역 등에서 전천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차량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